

南北接觸을 爲한 理論의 定立

—非政治的 分野의 接觸을 爲한 試圖—

具 本 泰

(行政學科 13回 卒業)

<目 次>

第一 序 論

第二 理論의 背景

第一節 統合과 接觸

第二節 接觸의 一般理論

第三節 南北接觸을 爲한 基準選定

1. 南北韓 關係의 二重構造의 性格

2. 南北接觸基準의 選定

第三 南北接觸 類型定立

第一節 接觸의 基準

1. 接觸과 同質性

2. 接觸과 政治文化

3. 接觸과 技術增進

第二節 相互關係: 同質性, 政治文化 技術增進

1. 接觸의 試圖와 維持·擴大

2. 波及作用

3. 接觸의 制約變數와 戰略變數

第三節 接觸의 類型

1. 尺度의 決定

2. 類型의 選定

第四章 類型의 適用 및 假說의 導出

第一節 接觸分解와 接觸方法

第二節 接觸의 Feasibility 檢討

—接觸의 諸 形態를 中心으로—

第三節 假說의 導出

第四節 理論的 限界

第五章 結 論

第一章 序 論

本 研究은 南北韓間의 接觸을 爲한 理論의 基礎를 定立하는데 二 目的이 있다. 따라서 本 研究은 南北韓 接觸에 關한 研究이며 同時에 韓民族의 統一을 平和的으로 實現하기 위한 새로운 接近方法에 關한 研究이다.

韓半島가 分斷된 以後 南北을 單一化 하기 위한

寸한 努力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努力이 南北을 單一化 하기에는 非妥協의이며 融通性이 없고, 實現不可能한 것이었다.⁽¹⁾ 이것은 다음 몇가지로 그 原因을 究明해 볼 수 있다.

첫째, 南北間에 놓여 있는 基本的인 兩側面 즉 「單一民族」이라는 要素와 「相異한 理念體制」——自由·共產——라는 要素間에 理念의 次元이 民族의 次元보다 優越하게 南北을 支配하고 있었다는 點,

※ 要約 內容의 目次는 筆者의 便宜에 따라 一部 修正하였음.

(1) 南北間을 基本的으로 南北韓이 處해 있는 武力의 對峙狀態에 強調해서 南北韓 關係를 說明하는 見解로서는 Morton Abramovitz, "Moving the Glacier; The Two Koreas and Powers," *Adelphi Papers*, No. 80,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71. 9 參照 그리고 "平和的 方法에 依한 統一獨立된 民主韓國의 建設"의 統一原則의 主張에 關해서는 *The 1954 Geneva Conference, Indo-China and Korea*, New York, Greenwood Press, 1968, pp.53-54, 58~59 參照.

둘째, 韓半島의 問題解決方法을 兩體制가 主導的으로 解決하려는 努力보다 強大國에 依存하려는 생각이 强했다는 點,

셋째, 南北을 單一化하려는 手段으로서 政治的 武力의 方法에만 執着하므로써 非政治的인 統合努力이나 美化的 方法을 고려치 않았다는 點,

넷째, 南北의 政治指導者들이 共同 統一實現을 위해 努力할 수 있는 共同의 目標 (common goal) 가 없었다는 點이다.⁽²⁾

이러한 諸 原因은 基本的으로 韓半島가 處해 있던 對內외의 與件 即 東西冷戰體制下의 理想的 國際政治 秩序와 이에 따른 政治指導者들의 對內問題解決에 있어서 強大國 依存 傾向 및 分斷現實과 統一理想이라는 두 觀念의 兩立 現象 等에 基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最近의 韓半島 內·外情勢는 統一問題와 關聯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方向性을 提示하고 있다.

첫째, 國際情勢가 國家實利主義를 標榜하는 脫 ideology 의 方向으로 進展되므로써 南北韓 關係를 「民族」과 「理念」의 兩側面으로 分離하여 생각할 수 있는 外的 與件의 造成.

둘째, 7·4 共同聲明 및 最近의 南北調節委의 活動 等으로 나타난 南北政治 指導者들의 統一을 위한 共同努力.

셋째, 南北間의 深化된 異質性을 解消하고 나아가서 窮乏인 單一化의 基盤을 造成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非政治的 領域에서의 統合努力의 可能性 增大.

넷째, 南北間의 統合을 爲해서는 非政治的 領域에서 政治的 領域으로의 段階的인 發展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非政治的 領域에서의 統合은 南北接觸의 媒介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假定的 實效性 增大.

本 研究은 위에서 整理한 4個의 前提에 根據하여 南北間의 平和的 統合을 實現하기 위한 初步的 段階로서 非政治的 領域의 接觸의 問題를 提起하고 다음 두 가지의 目的을 위해 試圖하였다.

첫째 是는 南北間의 統合을 위한 方便으로서 南北韓의 非政治的 領域에서의 接觸類型을 定立하는

일과, 둘째 是는 이러한 類型을 適用하여 南北間의 接觸可能分野와 方法의 容易度(feasibility)를 檢討하고, 接觸의 優先順位를 決定하는 等 몇 가지의 假說을 導出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南北韓의 特殊性에 基盤해서 接觸을 위한 判斷基準을 設定하여 이들간의 相互作用 關係에 對한 理論的 法則을 樹立하고 또 몇 가지의 새로운 用語의 概念을 定立하였다. 本 研究에서 使用된 主要한 概念은 다음과 같다.

○接觸: 接觸(contact)은 南北韓 機能主體 相互가 共同의 利益을 前提로 協助 또는 共同으로 活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接觸은 試圖과 維持·擴大의 兩屬性을 지닌다. 試圖라 함은 特定한 接觸이 始作되는 것을 말하고, 維持·擴大라 함은 일단 始作된 接觸이 계속되거나 同一領域內 또는 他領域으로 擴散돼 나가는 것을 말한다.

○統合·統一: 統合이라 함은 相異한 兩體制가 政治的, 領土的, 非政治的으로 單一化되는 過程 및 結果를 말한다. 反面에 統一은 既存의 領土的, 權力的 概念이 아니라 初步的 非政治的 統合에서 궁극적인 政治的 統合에 이르는 全過程을 政策的으로 把握하는 概念을 말한다. 이것은 南北間의 궁극적인 單一化를 實現하기 위한 前段階로서 南北 各 體制가 現實的으로 相對方을 韓半島의 部分 秩序로 認定해야 한다는 觀點에서 볼 때 既往의 統一概念으로서는 現狀을 說明할 수 없기 때문이다.

○同質性(Identity)·政治文化(Political Culture)·技術增進(Skill promotion): 여기서 「同質性」이라 함은 同一한 言語, 文化, 傳統, 血緣, 地緣 등의 民族史的 次元에서 南北이 갖는 同一性과 產業化, 工業化 등의 近代化를 指向하는 國家들의 共同慾求面에서의 同一性을 意味한다. 그리고 「政治文化」라 함은 具體的으로 自由·共產主義를 말하며 이것은 南北이 接觸할 경우 相互體制가 갖는 體制의 變質로부터의 守護하려는 立場을 說明하기 위한 概念이다. 마지막으로 「技術增進」이라 함은 接觸을 爲한 技術增進의 意味로서 特定接觸形態가 갖는 統一指向의 機能을 指稱하는 것으로서 南北接

(2) Yang S.C. "Korea Unification: A Functional model," memo., Virginia Univ., 1972. pp.2-5.

觸을 爲한 肯定的 機能을 말한다.

○接觸形態·接觸分野·接觸方法：南北間의 接觸에 있어서 二接觸의 범위를 分野面과 方法面으로 나누어 考査할 수 있다.

文化, 經濟, 社會 등은 接觸分野로서 理解되고, 人的往來를 通한 接觸이나 物資交流를 通한 接觸 등은 接觸方法으로서 把握한다. 그리고 接觸形態라 함은 이 分野와 方法의 各已 보다 細分된 屬性이나 特徵間의 相互 結合된 形態로서 實際接觸의 對象項目이 되는 것을 指稱한다.

第二章 理論의 背景

第一節 統合과 接觸

1. 機能主義(unctionalism) 統合理論의 一般의 考査⁽³⁾

2. 機能主義理論의 韓國의 接近

南北間의 統合은 機能主義의인 接近方法에서 考査할 수 있다. 一般의으로 機能主義法則은 開放社會間의 統合理論으로서 同一開放體制 國家 相互間의 統合을 目的으로 한다. 그러나 南北間의 統合은 相互 異質의 共產·自由 兩體制間의 統合에 그 目的이 있다. 따라서 開放體制 國家相互間의 統合理論으로서 適用되는 機能主義가 相異한 體制를 前提로 하는 南北間의 統合理論으로서 適用되기 위해서는 南北韓間의 機能의인 接觸이 前提되어야 한다.

一般의으로 開放社會間의 統合을 論할 때는 接觸이 單純히 統合을 위한 條件 내지 方法으로서 意味를 가진 뿐이며 相互의 接觸을 本質의으로 妨害하는 要因이 없다고 본다.⁽⁴⁾ 南北間의 統合은 接觸過程自體가 相互의 體制差異에서 摩擦·對立을 招來할 餘地가 常存하므로써 開放體制國家間의 統合과 差異가 있다. 反面에 南北韓은 歷史의인

單一民族의 經驗을 갖고 있다는 點에서 볼 때 전히 民族이 다른 國家相互間의 統合보다 有利한 條件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前者의 경우는 南北間의 統合이 開放體制國家間의 統合의 경우보다 어려움을 意味하는 反面에 後者의 경우는 보다 容易함을 뜻한다. 따라서 南北韓間의 統合은 前記한 두 가지의 相反되는 要素를 考査할 必要가 있다.

南北間에 機能主義의 統合理論이 適用되기 爲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基本的인 條件이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南北韓間에 統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接觸이 前提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南北韓間의 接觸은 두 가지의 要素 即, 「相異한 體制間의 統合」을 위한 前提이어야 한다는 點과, 「分斷同一民族間의 再結合」을 위한 前提이어야 한다는 點이다.

따라서 南北韓間을 위한 現段階의 課題로서는 上記 두 가지의 條件을 充足시키므로써 南北韓間에 適用될 수 있는 接觸理論을 定立해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第二節 接觸의 一般理論

G.C. Hormans는 그의 理論書인 *The Human Group*에서 社會團體의 構成員의 行態分析을 試圖하여 接觸(interaction)과 共感(sentiment), 活動(activity)의 相互 作用關係에 關한 假說을 檢證하였다. 그는 行態分析의 概念構造(conceptual scheme)를 集團構成員과 接觸, 共感, 活動으로 分類하고 ① 價值事件의 敘述段階, ② 一定한 期間 동안 限定된 範圍의 制限人員에 對한 普遍的 行態의 考査段階, ③ 一般의인 그룹에 適用될 수 있는 假說의 定立段階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⁵⁾

Hormans는 두 사람間의 接觸이 많으면 많을수록 一般의으로 相互間에 느끼는 共感(sentiment of

(3) 機能主義라는 말은 이 論文에서 使用하는 경우 이외에도 社會科學 全般에서 使用되고 있다. 例로서 "structural functional analysis"를 들 수 있을. 그러나 本 論文에서는 David Mitrany에서 始作된 地域統合 내지 國際機構의 統合理論으로서 機能의主義理論을 말한다. 參照 David Mitrany, *A Working Peace System*, Chicago, Quadrangle, 1966. 및 Earnest Haas, *Beyond the Nation-State: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1964., 우재승, 機能主義理論과 南北再結合, 國土統一院, 1972. 8.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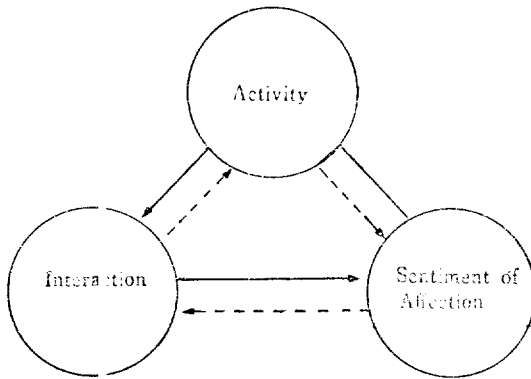
(4) 우재승, 『』揭書, p.7.

(5) George C. Hormans, *The Human Group*, N.Y.,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50, p.444.

affection)의 정도도 커진다는 分析假說을 想定하여 몇 個의 小集團(small group)을 對象으로 이를 檢證하고 있다. 그가 얻은 結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即「그룹」構成員 相互間의 接觸度(frequency of interaction)가 增加하면 할 수록 相互間의 共感은 더욱 補正되고, 同時에 이러한 共感에 基盤하여 共同으로 遂行하는 活動(activity)의 범위도 넓어진다. 이 關係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그룹」內의 接觸, 共感, 活動과의 關係



이러한 「그룹」內의 構成員의 行態에 對한 分析 結論은 南北間의 接觸理論을 定立하는 理論의 根據을 提示한다. 여기에 關한 보다 細部의인 內容은 第三章에서 技術增進과 接觸을 說明하는 過程에서 다루기로 한다.

第三節 南北接觸을 爲한 基準의 選定

1. 南北韓 關係의 二重構造의 性格

무릇 南北韓 統一의 問題는 相異한 體制—自由·共產—의 統合의 問題이며 同時에 單一分斷民族의 再結合이라는 特定한 意味를 內包한다. 이것은 南北間의 關係를 單一民族으로서 主體意識을 標榜하는 民族史的 側面과 自由·共產의 兩理念의 對立關係로 表示되는 世界史的 側面에서 考察할 수 있음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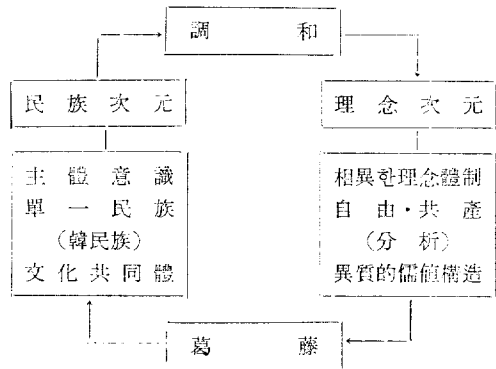
既存의 國際關係가 兩極化(bi-polarization)·冷戰 等の 用語로 表現되는 自由·共產의 理念의 對立의 秩序下에서는 南北關係의 基本的인 性格이 民族의 問題를 度外視한 理念의 對立에 不遇하였다. 그러나 最近의 世界史의 흐름이 國家實利를

標榜하는 脫 ideology 的 秩序 即 一段의 國家主義로 되돌아가기에 따라 南北韓關係는 民族의 性格을 띄지 않을 수 없게 되어 理念次元과 民族次元의 兩面性を 考慮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單一民族으로서 南北韓의 關係를 把握할 때 이것은 다분히 調和(harmonize)의 側面에서 南北韓關係를 肯定的으로 誘導할 수 있는 根據로 볼 수 있는 反面에, 理念의 對立關係로서 南北韓關係를 把握할 때는 相互의 葛藤(conflict)의 側面을 지니고 있으며 同時에 南北韓關係를 否定的으로 誘導할 수 있는 根據가 된다.

이러한 南北關係의 二重構造의 性格은 本論文이 目的하는 바 南北接觸 理論 定立을 위한 基本的인 「틀」로서 提起하고자 한다.

南北韓 關係의 二重構造의 性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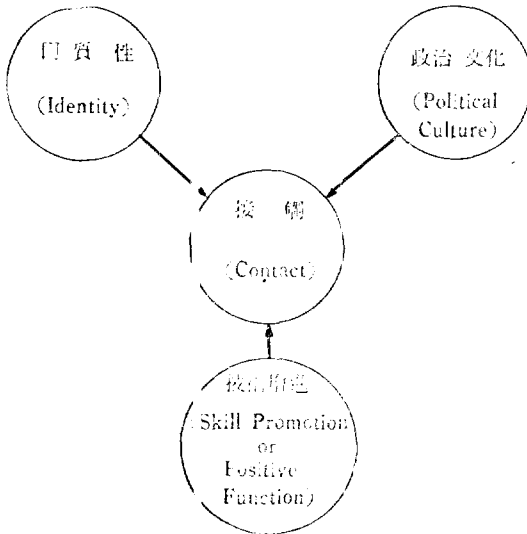


2. 南北接觸基準의 選定

南北韓의 接觸은 이와 같은 南北韓의 二重構造에서 把握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南北韓間의 接觸이 實現되려면 그것은 南北關係의 特殊性에서 同質性의 條件과 體制守護의 條件을 充足시켜야 한다. 즉 民族의 次元을 強調하는 條件으로 民族의 연계回復과 同質性 確保라는 必須的 要素와 同時에 南北의 異質化된 理念(政治文化) 體系를 直接的으로 깨뜨리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後者の 것은 各己의 政治自體를 否認하는 것으로서 各政體의 存立에 重大한 危脅要素로서 생각하므로 接觸自體論마저 否認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同質性, 體制守護의 두 가지 條件 以外 南北間의 接觸이 接觸技術의 增進 내지 機能的 領域에서의 接觸을 擴大 維持시킬 수 있는 波及機能이

併行되어야 한다.⁽⁶⁾ 이 세 가지의 條件을 南北接觸 理論定立을 위한 接觸判斷基準으로 設定하였다. 各基準과 接觸과의 關係는 다음과 같다.

南北接觸과 判斷基準



第二章 接觸과 判斷基準

第一節 接觸의 基準

1. 接觸과 同質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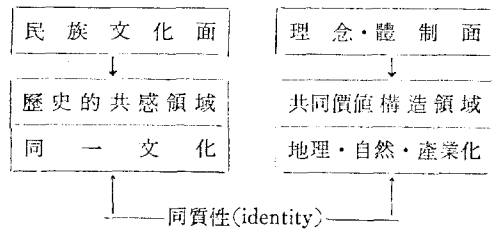
一般적으로 南北間의 同質性(identity)은 歷史·傳統을 같이 해온 民族文化面에서의 同一性과, 理念·體制와 無關하게 近代化·産業化를 目標로 한 諸般工業技術 등에서 나타나는 價值構造面에서의 同一性으로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南北間의 同質性은 民族·理念의 二重構造의 「틀」 속에서 考察할 수 있다. 同一民族으로서 갖는 同質性은 現實적으로 南北이 歷史的 共感을 느낄 수 있는 單一文化·傳統·言語·血統·地緣關係 등에 基盤한다. 이것을 民族文化面에서 南北이 갖는 同一性으로 把握할 수 있다.

反面에 相異한 理念·體制를 통한 相互의 理念對立의 側面에서 보면 비록 이러한 對立의 歷史를 標해 相互間에 異質의 價值構造를 形成하여 왔음에도 不拘하고 차라리 近代化·産業化를 目標로 한

工業技術(technology) 分野에서의 同一性이 存在한다. 그리고 以外에도 理念對立과 無關한 것으로서 海洋이나 氣象 등의 地理的·自然的인 同一性이 存在할 수 있다. 이러한 工業技術面에서의 同一性이나 地理的·自然的인 同一性은 南北間의 理念·體制의 問題를 떠나서 南北이 共히 느낄 수 있는 領域이다. 즉 南北이 理念·體制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共同으로 느낄 수 있는 共同價值構造의 領域이라고 表現할 수 있는 것이다. 以上을 南北關係의 二重構造와의 關係로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南北關係의 二重構造와 同質性



一般적으로 開放體制國家 相互間의 接觸은 接觸對象에 對한 同一認識에서 出發한다. 그러나 相異한 體制間의 接觸의 경우에는 接觸의 對象 즉 接觸分野나 接觸方法을 理解하는 各己의 價值體系의 差異를 考慮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의 接觸의 경우에도 같은 論理가 適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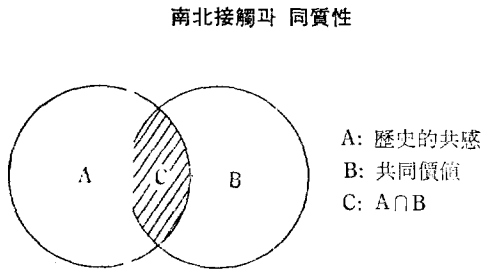
그러나 적어도 南北間의 接觸은 民族과 理念의 相互 矛盾되는 兩概念間의 二重構造에서 把握할 경우 肯定的인 民族이라는 同一性의 次元에서 否定的인 理念의 異質性을 解消시켜 나가는 努力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 南北同의 接觸을 爲해서는 民族文化面에서의 同一性 즉 歷史적으로 南北의 共感領域을 發見하여 試圖할 性質의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單一民族으로서의 主體意識의 面을 보다 強調함을 뜻한다.

同時에 南北間의 接觸은 이것을 南北의 統合을 위한 方便으로 생각하는 한 相互의 敵對感 내지 不信感을 助長하지 않는 範圍에서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南北의 相異한 理念·體制의 影響範圍 바깥에서 接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것은 곧 理念·體制와 無關한 共同價值領域

(6) 波及機能에 關係서는 本橋 第三章 「接觸과 技術增進」에서 基準의 妥當性을 立證하고 있다.

인 工業技術面이나 地理的·自然的인 領域에서의 接觸이 보다 容易함을 뜻한다.

南北間의 接觸과 同一性의 關係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表 3-2)



“A,” “B” “C”는 南北間의 接觸이 同質性을 갖는 條件이다. 즉 이것은 南北間의 接觸이 이루어지기 爲해서는 特定한 接觸 또는 接觸의 對象이 “A” “B” “C” 중의 어느 한 條件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圖示에서 나타난 “A” “B” “C” 중에서 “C”의 條件이 가장 바람직하다. 대신 “A”의 “B”의 경우에는 接觸의 容易도가 “C”보다 훨씬 弱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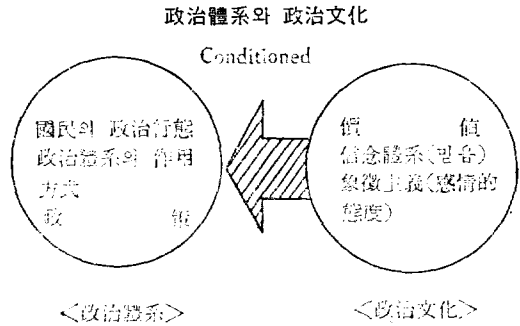
2. 接觸과 政治文化

政治文化(political culture)의 學問上의 概念은 行動者와 行動의 狀況의 相關關係를 前提로 한 것으로서 社會의 一般文化中에서도 “如何히 統治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關한 國民의 價値(values), 믿음(beliefs), 感情的 態度(emotional attitudes)를 말한다.⁽⁷⁾

한 나라의 人民들의 政治行態·活動 등을 그들의 政治的 價値, 믿음體系 및 感情的 態度 또는 象徵主義에 의하여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것을 構成要素로 하는 政治文化는 一般的으로 集團의 政治行態에 또 政治體系의 作用方式에 큰 影響을 준다 하겠다. 따라서 政治生活에 있어서의 權力作用 및 關心, 또 이 兩者에 의하여 生産되는 政策도 政治文化에 의하여 어떠한 狀態를 取하게 되며, 結局 한 나라의 政治體系는 政治文化에 의하여條

件지워진다(conditioned)고 볼 수 있다.⁽⁸⁾

政治體系와 政治文化에 對한 一般의 關係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政治文化의 概念에 着眼할 때 南北間의 接觸은 體制守護의 問題와 關聯된다. 韓半島의 分斷된 두 派의 政治體系는 지난 4半世紀동안 相異한 政治 理念과 支配體系에 依하여 極端의 硬直化 내지 異質化되어 버렸다. 따라서 雙方體制의 政治에 對한 價値와 信念體系 및 感情的 態度 즉 政治文化는 全히 相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異質的인 南北 各己의 政治文化는 南北間의 接觸이 이루어질 경우 基本的으로 相互體制의 變質誘因을 수반한다. 따라서 雙方體制가 各己의 自己體制 保存 내지 守護하려는 基本的 機能을 拋棄하지 않는 한 南北間의 接觸은 政治文化에 影響을 미치는 程度가 殊승무 實現되기 어렵다는 論理가 신다. 이것은 곧 南北相互의 價値·믿음, 感情的 態度와 無關하거나 또는 相互 影響을 認定하나 甘受할 수 있는 部分에서 段階的, 漸進的으로 接觸이 試圖·發展되어야 함을 말한다.

3. 接觸과 技術增進

特定한 形態의 接觸을 통해서 共同의 意識을 形成하는 것은 南北間의 接觸이 指向하는 바 하나의 目的이 된다. 一般的으로 接觸을 통해 共同意識을 갖는다는 것은 接觸의 過程에서 좋은 經驗(good experience)을 쌓아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爲해서는 特定한 接觸形態 그 自體 또는 그것이 包含하는 屬性이 共同의 協助와 作業을 통해 成功感

(7) S muel H. Beer, (ed), *The Analysis of Political System in Patterns of Government*, N.Y., Rndom, 1953, p.12.

(8) 李天柱, 韓國政治體系序說, 서울, 文運堂, 1961, pp.172~173. Samuel H. Beer, *op.cit.*, p.175.

(experience of success)을 確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論리가 成立한다. 즉 特定한 接觸過程을 通해 南北間의 相互協助나 共同研究 등이 成功感을 가질 수 있는 接觸形態의 경우에 共同意識이 形成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Bernard de Veto는 Hormans의 *The Human Goup*의 序文에서 接觸(interaction)과 共感(sentiment)에 關해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⁹⁾

“Interaction and “Sentiment” depend on each other; the oftner “A” and “B” do things together, the more they tend to like each other; the more they like each other, the oftner they will tend to do things together.....”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도 協助나 共同努力을 通한 兩者의 行爲의 結果가 “滿足스럽다”는 成功感에 基盤하고 있음은 勿論이다.

南北間의 接觸을 爲한 基準으로서 技術增進(positive function or skill promotion)은 特定한 接觸形態 그 自體가 갖는 屬性이 接觸의 技術을 增進시키느냐의 與否를 判斷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의 作用面에서 分離하여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特定한 接觸形態의 接觸過程을 通해서 얻은 知識이 다른 形態의 새로운 接觸을 誘發케 하는 波及作用이고 다른 하나는 同一分野內에서 接觸을 繼續 擴大하고 維持하려는 意慾을 느끼게 하는 作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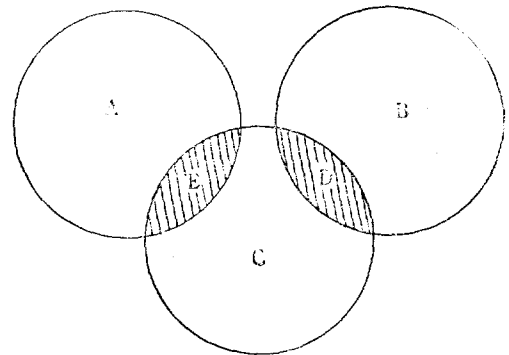
一般的으로 이러한 技術增進은 그것이 波及作用이든 維持·擴大作用이든 間에 根本적으로 接觸의 成功感에서 出發한다. 다시 말하면 技術增進의 作用을 생각할 때 特定한 接觸形態의 경우 그것이 純粹한 機能面에서 相互體制間의 利害關係를 充足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接觸이 中斷된다. 따라서 相互의 利益이 不在하는 경우 그 利益 自體가 接觸을 維持하고 擴大시키며 다른 分野나 方法으로 波及해 나가는 動機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南北間의 技術增進은 接觸을 通한 相互間의 滿足感 내지는 成功感과 一次的으로 關聯시킬 수가 있으며 特定 接觸形態의 接觸에서 成功感이나 滿足感を 確保할 수 있다고 豫測될 경우 그것은 技術增

進의 여지가 있다고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一般的으로 이러한 豫測은 特定한 接觸形態가 南北間의 接觸을 通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는 結果에 對한 期待感의 程度에 따라 區分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成功感에 대한 結果는 特定한 接觸形態의 接觸에서 처음부터 일으키려 目的하는 「意圖된 結果」(intended result)와 처음부터 期待하지 못했던 「例外的 結果」(unintended result)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例外的 結果」에 對해서는 接觸이 일단 이루어지고 난 以後에 考慮될 性質의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豫測치 못한 結果는 暫定的인 것이고 또한 二次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南北接觸 基準으로서 技術增進은 特定한 接觸形態를 現在의 與件으로 分析하여서 成功의 期待值를 產出하고 豫測해보는 次元에서만 意味를 갖는다. 다만 여기서 「分明히 해 두어야 할 것은 特定 接觸形態가 갖는 技術增進의 期待值의 程度를 豫測하는데 있어 前記한 다른 두 가지의 接觸基準 즉 同質性, 政治文化的 範圍를 「排除하는 점이다. 따라서 技術增進의 範圍는 特定 接觸形態 自體의 機能的인 領域에만 局限해서 把握해야 할 性質의 것이다. 이러한 技術增進을 把握하기 위한 期待感의 程度를 圖示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接觸과 技術增進



- A; 豫備치 못한 결과
- B; 意圖된 결과(豫期한 결과)
- C; 成功의 期待感
- D; 南北接觸可能條件

(9) George C. Hormans, *op.cit.*, p.7.

上記 圖示에서 “B” “C”가 겹치는 부분 즉 B∩C의 領域인 “D”가 現實的으로 南北接觸을 可能하게 하는 條件이 되고 “D”의 領域은 앞으로 설명할 波及 效果의 戰略要素가 된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可能한 한 接觸形態를 그 分野나 方法에서 보다 細部的으로 分類하므로써 “D”의 領域까지 局限시켜서 把握할 수 있는 接觸形態를 想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關해서는 第二節의 「基準間的 相互關係」를 說明하면서 詳述할 것이다.

第二節 相互關係：同質性，政治文化，技術增進

1. 接觸形態：接觸可能形態와 接觸關聯形態

南北間의 接觸의 諸形態는 接觸可能形態와 接觸關聯形態로 나누어 진다.

여기서 接觸의 形態라 함은 接觸의 分野와 方法의 結合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즉 一例를 들면 「아스카 고분 共同研究」의 境遇 이것은 「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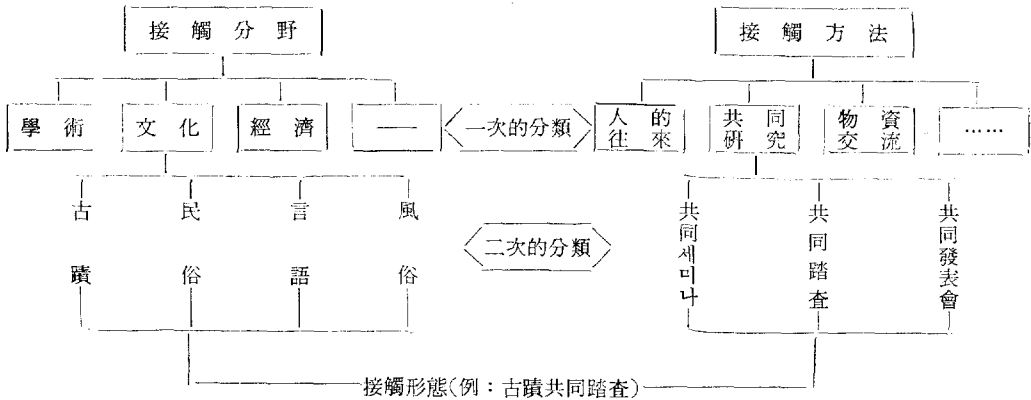
化」라는 屬性과 「共同研究」라는 屬性으로 分離될 수 있다. 이때 「文化」를 接觸分野, 「共同研究」를 接觸方法으로 보았을 때 이 두가지 屬性의 結合인 「아스카文化共同研究(分野+方法)」를 接觸形態로 把握한다.

接觸分野와 接觸方法은 理論上 各各 同一次元에서 細分할 수 있다. 여기서 細分하기 以前의 境遇를 「一次의 分類」라 하고 細分 以後의 分類를 「二次의 分類」라고 한다. 즉 接觸分野의 境遇 學術, 經濟, 文化, 藝術 等으로 分類된 境遇와 接觸方法의 境遇 物資의 交流, 人的往來, 共同研究 等으로 分類된 境遇를 一次의 分類라 하고, 이것이 다시 細分된 境遇를 二次의 分類라 한다.

다시 말하면 一次의 分類에서 나타난 文化의 境遇(分野)와 共同研究의 境遇(方法)를 各各 古蹟, 民俗文化, 言語, 風俗으로, 그리고 共同세미나, 共同調査, 共同踏査의 式으로 分類된 境遇를 二次의 分類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接觸形態의 構成



이와 같이 接觸의 形態를 接觸分野와 方法의 結合으로 볼 때 이것은 理論上 다시 「分野의 接觸可能性」과 「方法의 接觸可能性」으로 區分할 수 있다. 이 境遇 可能한 分野와 方法의 二次의 結合形態를 「接觸可能形態」로 把握하고 同一分野와 方法의 二次의 結合形態中 接觸可能形態를 除外한 接觸形態를 「接觸關聯形態」로 指稱할 수 있다.

2. 接觸의 波及作用

南北間의 接觸은 特定한 接觸可能形態를 통해 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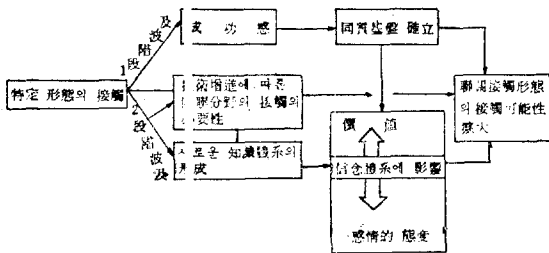
觸이 成功的으로 이루어 지므로써 이것을 構成하는 接觸分野·接觸方法이 細分된 關聯 屬性을 變質시키므로 波及될 수 있다. 이때 波及이 이루어지는 것은 接觸 過程에서 얻은 成功感 또는 技術의 增進에 의한 接觸擴大·維持를 위한 要求 때문이다.

特定한 接觸可能形態의 接觸이 이루어질 경우 거기서 생기는 成功感은 關聯形態의 同質的인 屬性(identity)을 強化 내지 生成시킨다. 즉 共通의 새로운 經驗基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經驗基盤은

南北의 同質性의 범위를 擴大 回復시키는 반면 南北住民의 政治의 價值構造에도 漸次 同一意識을 느끼게 되며 이것은 政治文化의 다른 屬性에까지 傳播된다. 이것이 第1段階의 波及이다.

이와 同時에 特定한 接觸過程에서 얻은 成功感以外 이러한 過程에서 나타난 새로운 知識體系의 獲得等의 接觸(術面)의 增進現象은 聯關分野의 接觸의 必要性을 느끼게 하고 同時에 接觸이 이루어진 分野나 方法에 對한 증진의 政治的인 信念體系에 形響을 주어 政治文化의인 屬性을 同和 내지 變質시킨다.⁽¹⁰⁾ 이것이 2段階의 波及過程이다. 이러한 1, 2段階의 波及作用은 接觸聯關形態의 接觸條件을 改善해 나가므로써 聯關形態의 接觸可能性을 擴大시키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接觸의 波及作用을 圖示해보면 다음과 같다.

接觸의 波及作用構造



이러한 波及過程은 特定한 接觸이 試圖되었음을 想定한 경우에 이것이 聯關形態로 波及되는 作用關係를 說明한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가 核心으로 하고 있는 接觸可能形態의 發見과 그 優先順位를 決定하는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以上の 波及作用을 포함한 接觸의 試圖·維持·擴大面에 있어서 接觸과 基準間的 相關關係를 檢討해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3. 接觸의 條件: 制約變數와 戰略變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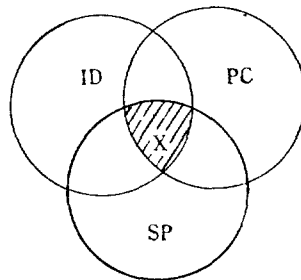
南北間의 接觸을 위해서는 그 形態를 前記한 判斷基準과 接觸의 試圖, 維持擴大와의 關係에서 파악할 수 있다. 우선 接觸이 이루어진다 함은 接觸의 試圖가 可能해야 하고 또 試圖된 接觸이 維持·擴大가 可能해야 한다. 즉 接觸의 試圖가 可能한 範圍를 "A," 接觸의 維持·擴大가 可能한 範圍를 "B"라 할 경우 接觸可能範圍(X)는 $X = A \cap B$ ("A" cap "B")로 表示된다.

南北接觸의 判斷基準을 接觸의 試圖와 維持·擴大面의 關係로 整理해 볼 때 同質性과 政治文化의 條件은 接觸의 試圖面에서의 「制約變數」로 볼 수 있는 反面에 技術增進은 維持·擴大面에서 「戰略變數」로 把握할 수 있다⁽¹¹⁾ 이것을 위의 公式에 變形시켜 適用시켜 볼 때 接觸可能範圍(X)는 $X = f(ID \cdot PC \cdot SP, \dots)$ 또는 $X = \text{同質性}(ID) \cap \text{政治}$

一定文化(PC) \cap 技術增進(SP)로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이러한 公式이 適用되기 위해서는 基本的인 南北韓의 接觸을 위한 政治的 努力과 韓半島의 國際的 與件이 南北의 接觸에 有利하다는 假定이 前提된 경우라야 할 것이며 同時에 적어도 세 가지 基準의 比重을 同一次元에 두었음을 前提로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關係를 圖形化하면 다음과 같다.

接觸의 條件



左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南北間의 接觸은 세 가지의 基準을 滿足시키는 範圍 "X"에서 可能하다. 즉 $ID \cap PC \cap SP$ 의 條件을 갖추는 接觸可能形態가 接觸可能形態가 된다.

(10) 機能主義 統合理論에서는 이것을 "learning process"로 說明하고 있다. 우재승, 統合理論의 比較 研究와 韓國統一의 接近方法, 國土統一院, 1972, pp.9~12.

(11) 制約變數와 戰略變數의 設定은 判斷基準의 各己層性과 接觸의 兩屬性—試圖와 維持擴大—間的 關係에서 그 作用關係를 把握하였다. 原論文 參照.

第四章 接觸의 類型

以上에서 南北間의 接觸可能形態는 세 가지 判斷基準—同質性·政治文化·技術增進의 共有範圍 즉 $PC \cap ID \cap SP$ 의 範圍를 充足하는 것이어야 함을 說明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基準間의 相互關係를 實際 接觸可能形態의 判斷을 容易토록 하기 위한 單純化의 去則을 發見하여 이것을 類型化하므로써 假說導出의 基準으로 삼고자 한다.

第一節 尺度(scaling)의 決定

南北間의 接觸과 關聯하여 세 가지의 判斷基準을 다음으로 則定의 範圍를 區分하였다.

判斷基準의 尺度 (1)

基準	尺度		
	肯定的(+)	中立的(0)	否定的(-)
同質性			
政治文化			
技術增進			

上記 圖示에서와 같이 各 基準을 肯定的(positive) 中立的(neutral), 否定的(negative)로 나누었다. 즉 接觸의 技術增進, 同質性, 政治文化를 各各 그 屬

判斷基準과 尺度 (2)

	+	0	-
同質性 (ID)	歷史의 共感 및 共同價值領域	歷史의 共感 또는 共同價值領域	異質的
政治文化 (PC)	影響無	相互影響 (政治的 努力으로 相互諒解 可能)	一方의 影響 또는 相互影響의 程度가 큼
技術增進 (SP)	肯定的機能 (統一 指向의 機能 또는 體制發展의 機能)	中立的	逆機能 (마찰, 대립 등)

性을 통한 判斷過程으로 보고 이들이 南北間의 接觸에 對한 促進 또는 沮害하는 程度를 세 가지로 區分한 것이다. 이것을 屬性別로 各 Cell에 表示하면 表(2)와 같다.

여기서 이러한 尺度의 意味가 있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基準中의 하나 또는 그 以上이 否定으로 나타나는 接觸形態는 적어도 現段階에서는 接觸이 어렵거나 또는 接觸을 통하여 오히려 마찰, 對立을 가져오는 경우라는 點이다. 따라서 接觸이 可能하기 위해서는 諸判斷基準이 最少限 中立的이거나 또는 肯定的인 接觸形態이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여기서 留意할 것은 各 判斷基準間의 比重을 同一하게 하였다는 點이다. 이것은 세 가지의 條件 중 두 條件이 肯定的이고 다른 한 條件이 中立的인 경우의 數인 $++0, +0+, 0++$ 의 3 가지 형태가 同一하다는 假定에 立脚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보다 세분된 意味의 測定單位間의 比重問題는 本研究에서 배제하였다.

第二節 類型의 選定

위에서 檢討한 각 尺度에 따라서 南北間의 接觸可能形態를 選定할 경우에 肯定的이거나 적어도 中立的인 경우에 한해서 接觸條件의 優先順位를 가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接觸可能形態는 적어도 세 가지 基準이 갖는 尺度值의 결합(즉 $ID \cap PC \cap SP$)이 中立的이거나 그 以上이어야 한다. 여기서 便宜上 否定的인 경우를 包含하여 特定의 接觸形態가 構成할 수 있는 一般의인 組合(combination)—경우의 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表에서 否定的인 경우 즉 “-”를 하나 또는 그 以上 가진 경우를 除外하면 1, 2, 4, 5, 10, 11, 13, 14의 8 가지의 組合이 南北間의 接觸可能條件이 된다. 여기서 8 개의 경우를 다시 分類하면 세 단위가 모두 “+”인 경우와, 두 단위가 “+”이고 하나가 “0”인 경우, 두 단위가 “0”이고 나머지 하나가 “+”인 경우, 그리고 세 단위가 모두 “0”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以上을 다음과 같이 4 가지 類型으로 整理할 수 있다.

- +++.....①의 경우
- ++0, 0++, +0+.....②, ④, ⑩의 경우
- +00, 0+0, 00+.....⑤, ⑪, ⑬의 경우

接觸條件의 단위간 구성조합

(3×3×3)

	ID	PC	SP		ID	PC	SP		ID	PC	SP
1	+	+	+	10	0	+	+	19	-	+	+
2	+	+	0	11	0	+	0	20	-	+	0
3	+	+	-	12	0	+	-	21	-	+	-
4	+	0	+	13	0	0	+	22	-	0	+
5	+	0	0	14	0	0	0	23	-	0	0
6	+	0	-	15	0	0	-	24	-	0	-
7	+	-	+	16	0	-	+	25	-	-	+
8	+	-	0	17	0	-	0	26	-	-	0
9	+	-	-	18	0	-	-	27	-	-	-

○○○.....⑭의 경우

以上에서 세 基準이 모두 “+”인 ①의 경우를 「T₁」, 다음 ②, ④, ⑩의 경우를 「T₂」, ⑤, ⑪, ⑬의 組合를 「T₃」, ⑭의 경우를 「T₄」로 分類하여 이를 할 경우 南北接觸의 可能形態의 類型은 T₁, T₂, T₃, T₄의 4 경우만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類型間的 明確한 關係를 說明하는 데는 理論上的 限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一般化하여 T₁→T₂→T₃→T₄로 接觸의 優先順位를 배열할 수 있을 것이다.

接觸의 4 가지 類型

T ₂ (++0)	T ₁ (+++)
T ₃ (+00)	T ₄ (000)

接觸分野×接觸方法 (9×4)

接觸分野	① 海氣 洋象	② 經 濟	③ 文 藝 化 術	④ 言 出 論 版	⑤ 體 育	⑥ 交 通 通 信	⑦ 學 術	⑧ 觀 光	⑨ 醫 療 保 健
A. 人 的 往 來	1A	2A	3A						
B. 物 資 交 流			3B			6B			
C. 技 術 情 報 交 流				4C					
D. 共 同 事 業, 共 同 研 究 (common project)			3D		5D				

* 1A, 2A 등은 分野와 方法을 結合시킨 接觸形態를 指稱하는 表記名이다. (3D에 해당하는 例로서는 “海外民俗文化共同研究”를 들 수 있다.)

(12) 本 分類은 주로 東·西獨 接觸事例를 參照하여 抽出해 낸 것이다. 中央情報部, 東·西獨接觸關係資料集 上·中·下, 1972 參照.

T₁ 類型의 接觸形態는 接觸의 試圖나 波及機能面에서 完全한 形態이고, T₄의 경우에는 보다 政治的인 努力이 要求되는 接觸形態로서 把握될 수 있다. 이 4가지의 類型은 다음 五章에서 檢討할 假說導出 過程에서 適用될 것이다.

第五章 類型의 適用 및 假說의 導出

本章은 앞에서 얻은 接觸의 諸 類型에 立脚하여 南北接觸을 위한 接觸形態發見과 이 形態들의 feasibility 檢討를 통한 接觸 우선 순위 및 接觸可能形態 導出에 力點을 두었다.

따라서 一次的으로 南北間의 諸般接觸形態를 導出할 수 있는 外廓範圍인 接觸分野와 接觸方法을 各各 分類하고, 다음으로는 決定된 分野와 方法的 二次的 屬性을 結合시킨 諸般接觸形態를 想定하여 各 形態의 接觸 容易度를 檢討하였다. 分類된 接觸分野와 方法(9×4 matrix)은 다음과 같다⁽¹²⁾

